‘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어지혜 작가 “10주년 축하하며 초여름에 피어나는 열 송이 꽃들이 춤 추는 형상으로 작업”

무주의 자연 속에서 영화와 함께 여유로운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2022. 6.2.~6.6.)가 2022년 10회를 기념한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무주산골영화제’가 제10회를 맞아 생동감 넘치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10회를 의미하는 형형색색의 열 송이 꽃들과 ‘무주산골영화제’의 새로운 심볼, 로고가 함께 어우러져 특유의 ‘자연친화적인 낭만 영화제’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여기에 바람에 자유롭게 날리는 듯한 열 송이 꽃들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과 여기저기 흩날리는 꽃잎들은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하는 동시에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처럼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한 기대를 고스란히 담은 올해 공식 포스터는 디자인 스튜디오 스팍스에디션 ‘어지혜’ 작가의 아트웍으로 완성되었다. 스팍스에디션의 공동대표인 어지혜 작가는 스팍스에디션 전시 ‘dancing blue’,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전집 커버(민음사), 현대 백화점 시즈널 아트웍, 아리따움 시즈널 아트웍, 한희정 〈NOTATE〉 앨범 커버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하며 디자인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다.

평소 꽃과 자연, 사람과 곡선 등에서 영감을 받아 참신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지혜 작가는 이번 포스터에 대해 “무주산골영화제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초여름에 피어나는 열 송이의 꽃들이 춤을 추는 형상으로 작업했다. 푸른 빛을 머금은 자연 속에서 개최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시원한 바람과 경쾌한 기분을 이번 포스터에 담았으며 10주년의 기쁨과 축제의 설렘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10주년에 대한 기쁨과 설렘, 자유로운 무드를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총 5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태어나길 잘했어’ 프리미어 시사회

4월 14일 개봉 앞서 4월 1일 전주서 무대인사 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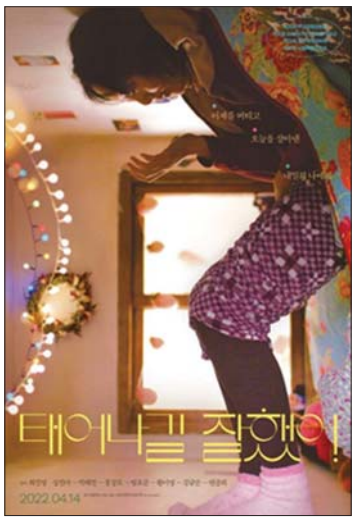
‘태어나길 잘했어’가 4월 14일 개봉에 앞서 전주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사)전주영상위원회는 4월 1일 전주 영화의 거리 씨네Q에서 최진영 감독의 신작 ‘태어나길 잘했어’ 프리미어 시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사회에는 최진영 감독과 영화의 주연인 강진아, 홍상표 배우가 참석, 무대인사로 관객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는 손에 땀 마를 날 없는 ‘다한증’ 때문에 외로움과 부끄러움이 전부가 돼버린 ‘춘희’에게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면서 시작되는 사랑스러운 성장담. 다양한 독립영화에 출연해 온 강진아 배우가 어른 ‘춘희’ 역을 맡았고 홍상표, 황미영 등 개성 있는 배우들이 조연으로 참여했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신선한 설정과 독특한 전개,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로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이후 제16회 오사카아시안영화제에서 재능상을 수상하고 제11회 광주여성영화제 개막작,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 부문,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 시네마 부문 등에 공식 초청되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최진영 감독은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으로, 이번 전주 프리미어 시사회는 더욱 뜻깊다. ‘태어나길 잘했어’는 전주시, 전주영상위원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으며, 영화의 99%를 전주에서 촬영했다. 이에 씨네Q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진행되는 프리미어 시사회에 참석하는 관객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063-286-0421, 내선1번)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 관련 기업지원

기업 기술애로 · 전통기술 계승 위한 인력지원 등 추진

한지산업지원센터가 한지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한지와 관련한 국내 유일의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인증 시험기관인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시험분석을 통해 한지 관련 업체들이 개발한 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도록 있도록 다양한 연구분석과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

이에 R&D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되도록 기업 기술애로, 전통기술 계승을 위한 인력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6억3천여 만원의 정부예산을 받아 3개년 사업인 ‘한지·건축인테리어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센터는

사업의 2차 년도인 지난해까지 도내 20여개 한지 관련 40여 업체들을 지원해 왔고, 올해도 지속된다. 또한 지난 2020년 중기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전주업체인 고감한지엔 페이퍼, 성일한지 등 2곳의 한지관련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전통기업에 대해서도 센터는 ‘백년소공인’으로 성일한지와 용인한지 등 2곳의 한지 관련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여 동안 해마다 2개 기업이상의 협업기관으로 선정돼 업체 당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한지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부족한 인원으로 전통한지의 계승·발전과 연구개발을 통한 기업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왔다”며 “이제는 흑석골에 전주천년한지관 4월 개관을 통해 전통한지와 관련한 지원 및 교육은 천년한지관에, 기업지원 및 R&D는 센터에서 수행토록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나눠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고암 오병기 선면화전’ 전주부채문화관서 개최

4월 1~12일까지 다양한 소재 실경위주 사생작품 전시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고암 오병기 선면화전이 개최된다.

원광대학교 미술교육학과 및 동대학원 수료한 오병기 작가는 서울, 전주, 군산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중국, 일본, 태국 등 해외교류전과 다수의 기획초대전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 작가는 한국미술협회전주지부장, 온고을미술전대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이사, 벽천미술관 운영위원, 원광대 강사, 우석대강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묵회, 원미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한국창작문학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예총공로상, 전주예총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부채에 그림과 글씨를 써넣은 풍속이 고려중엽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전주에 선자청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더위를 피하거나, 비를 피하는 생활용품으로서의 목적을 넘어, 부채의 선면에 그려진 글과 그림은 사람의 품격을 높여 주었다.

설악운해.

부채의 고장 전주부채문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고암 오병기 선면화전에는 산수, 풍경, 문인화 등 다양한 소재로 실경위주의 사생작품이 전시돼, 부채에 담겨진 선면작품을 통해 부채가 가진 기능과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내적인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오병기 작가는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고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부채그림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2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전북예술나비)’에 참여할 도내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도내 기업·기관(마을)은 4월 1일까지, 예술인은 4월 4일까지 이메일(jb711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전국 광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재단은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는 3억9,600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내 예술인 50명과 기업·기관(마을) 10개 기관을 모집·선정 후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전라북도 거주자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업·기관(마을)은 도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도내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예술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도내 기업·기관(마을)에게는 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슈 해결 과 혁신 기회 제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